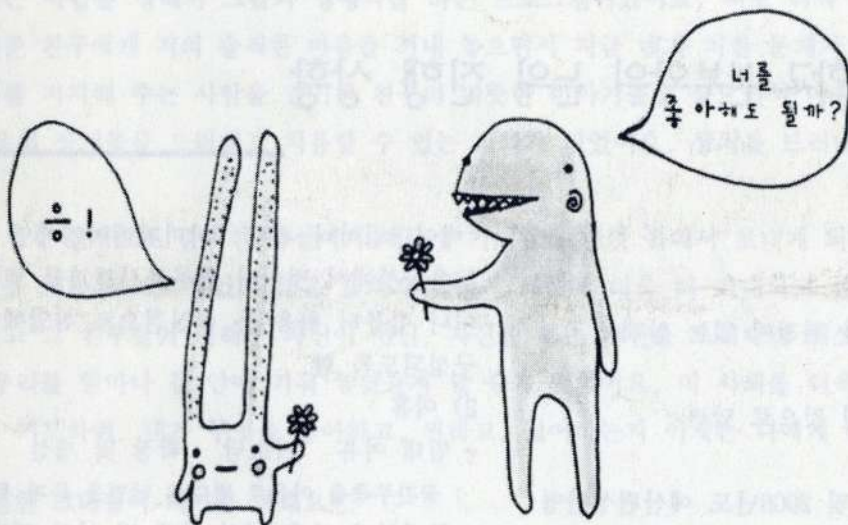


첫 번째 손 내미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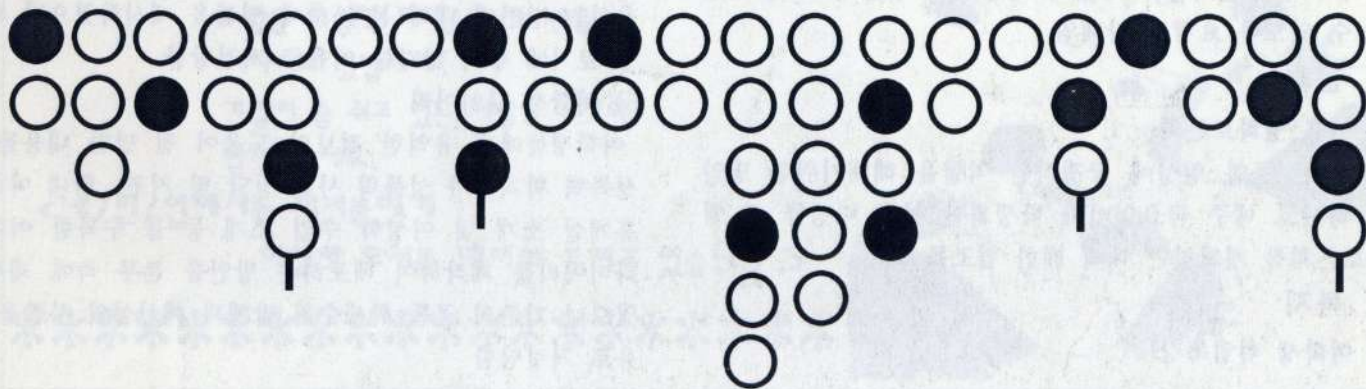
스물한번째 총여학생회
<발칙해서 더 특별한 내/인/연>

인/연/으로부터

○○○



copied by www.mass.pe.kr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스물한번째 총여학생회 <발칙해서 더 특별한 내/인/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란 어렵고도 험난합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아래 그녀들에게 다양한 양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그녀들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여자'로 행동하고 사고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성에게 더욱 여성스럽게, 조신하게, (외적으로) 더 아름답게 등을 강요하는 이러한 모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반대합니다.

여성주의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잘 들리지 않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는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과 창조력의 원천입니다. 여성주의는 여성과 남성, 성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작지만 힘찬, 그래서 발칙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특별한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스물한번째 총여학생회의 첫 번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작년 2학기 활동과 방학 중 활동, 또한 이번 학기 활동계획까지 이 소식지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주의 물결이 캠퍼스 안에서 출렁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총여학생회와 학교 본부와의 논의 진행 상황



1. 제도

1) 반성폭력 학칙 개정

논의 자리 마련에는 동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

2) 월경 공결제 시행

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답변

3) 성폭력상담소 설치

2005년도 학생자치단위요구안 및 2006년도 예산편성반영요구안을 통해 끊임없이 주장했으나 예산과 공간 부족을 핑계로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음

4) 성폭력 예방교육

교강사 대상 예방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강제력이 없고 실질적인 내용습득 여부를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임

신입생 대상 예방교육은 2005년도의 오리엔테이션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선택 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 함.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임

2. 문화

1) 여휴 영화토론회

학내여성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회관 여휴 미팅룸 내 영화토론회를 개최하는 데에 대한 협조를 요청

3. 복지

1) 여학생 취업특강

메이크업이나 워킹, 이미지메이킹에만 주력했던 기존의 교육구성에서 벗어나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어 능력이나 컴퓨터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도록 함.

2) 여휴

- 법대 여휴 '지소담' 확장 및 개선

: 공간부족을 이유로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함

- 학생회관 여휴 예산 증대 및 시간 연장

: 2006년도 예산편성반영요구안을 통해 주장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는 상태

-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세미나룸 빔 프로젝터 설치

: 본부 측의 긍정적 검토 및 논의 진행 중

3) 사위실-중간문 및 물막이커튼 설치

본부 측의 긍정적 검토 및 논의 진행 중

4) 여성 전용 흡연실

열악하나마 기존에 이용되었던 학관 여휴 테라스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부 측에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5) 여학생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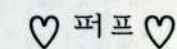
여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반성폭력 학칙이나 성폭력 사건 상담 및 지원, 학내 여학생 휴게실 소개 및 여성학 수업 소개 등-을 수록한 여학생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본부 측에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공통 학생수첩 발행과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함

내/인/연의 겨울방학



하이힐ing

그녀들의 아주 특별한 겨울마실



2월 5일~ 7일까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하이힐 ing'라는 이름으로 겨울 마실을 진행했어요. 이번 마실은 그 동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썩었던 가면들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요.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여자라는 이름, 또 여학우라는 이름들이 여성인 나를 더 여성스럽게 만들잖아요. 사회에서 만든 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나를 표현하고 발견하는 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마실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또 그 동안의 차별적 상황, 자신이 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회에서 만든 자신을 규정하는 것들에서 받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기회도 갖았어요. 하하. 좀 거창해 보인다고요? 거창해 보이지만 결코 거창할 것이 없는, 솔직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마실이었지요. 이번 마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특히 'Let's P/L/A/Y girl'이라는 연극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 날 밤에 진행된 이 연극은 그 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솔직한 이야기들로 풀어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들과 상황극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연기해준 친구에게 저의 솔직한 마음을 꺼내 놓으면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연기한 친구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동안의 내 마음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치유하는 것의 시작이니 까요.

이번 마실은 제가 팀장으로 준비한 마실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한껏 들떠서 보내게 되었어요. 밤새서 우편작업을 하고, 정성스럽게 글을 쓰는 등 그 동안의 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되고 즐거운 마실이었지요. 특히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정해진 자신이 아닌, 자신을 보는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사회적 제약이 우리를 얼마나 틀 안에 가둬 놓았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사회를 더욱 더 발전하게끔 만드는 모범적인 거름이 되기를 거부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고, 싫어하는지 이제는 나에게 솔직할 거예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에 충실한 그녀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기서 잠깐*****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여성주의.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총여학생회실로 오세요.
수많은 여성학 도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히 숨 쉬고 있는 여성학 도서와
함께 하세요.

<내/인/연에서는 여러분에게

여성학 도서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터는 어떠했나요?

♡눈사람♡

대학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학우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을 안고 새터에 갑니다. 새터라 하면 '새내기 배움터' 인데 많은 새내기들이 도대체 새터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할지 생각 없이 출발하고, 새터에서 돌아온 이후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고 돌아옵니다.

새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 '술' 입니다. 특히 일명 선배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새터에서는 특별히 사정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분위기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지요. 남자가 한 방에서 술을 마시면 여김 없이 '러브샷' 이 등장하고요. "러브샷! 윈!" "러브샷! 투!" "삼 단계! 삼 단계!" "사귀어라! 사귀어라!"

새터에서 잊지 않고 꼭꼭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걸린 사람이 러브샷을 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달리 러브샷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들은 러브샷이 싫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나는 저 사람과 이런 식으로 절대 스킨십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곳의 분위기는 정말 하지 않으면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해야만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는 러브샷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 자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터에 가면 많은 선배들이 새내기들에게 "새나기가, 어디 선배가 주는 술을 거부해~? 마셔, 마셔. 마시고 죽어" 라는 등의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새나기도 술이 마시기 싫다면 선배의 술이든 친구의 술이든 교수의 술이든 마시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나치게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새터 문화는 수많은 새내기들에게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새터에 가서 사람을 사귀는 것, 특히 술로 사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도구만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화 없이 굳어져 온 새터 문화에 대해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꼭 그 방식만이 새나기가 대학 생활을 배울 수 있는 방식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즐겁게 새터에서 놀 수 없나요?"

.....정말... 그...런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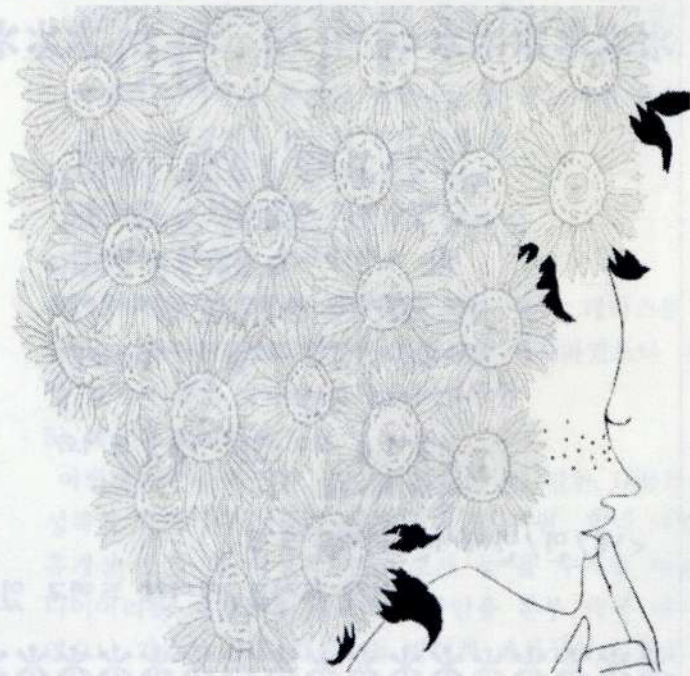
땀나도록 뛰어놀고 싶은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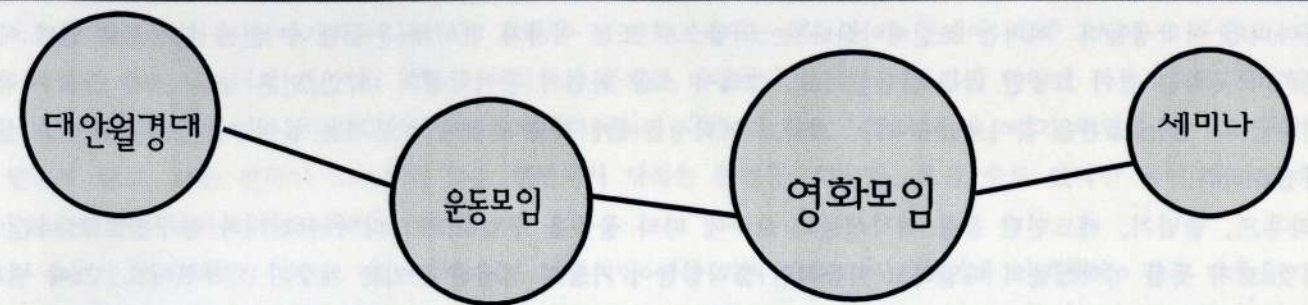
뛰어놀고 싶어도 뭘 하면서 뛰어 놀아야 할지 잘 모르시겠어요?
총학생회실로 오세요!
줄넘기, 훌라우프, 배드민턴, 농구공 등등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운동기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인/연에서는 여러분에게

운동기구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인/연의 05년 2학기 살림



#1. 나의 몸이 좋아해 (대안월경대 모임)

♡펭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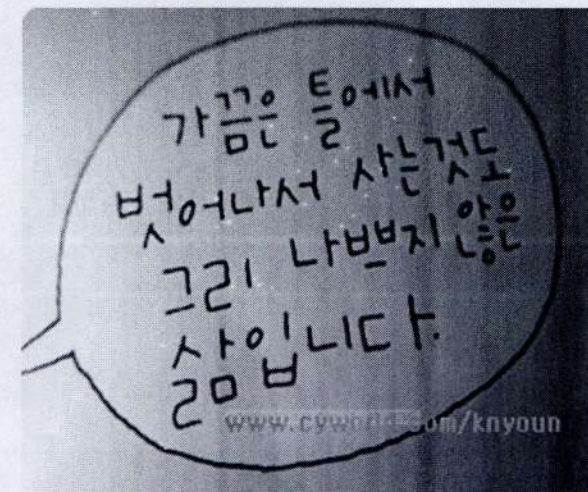
대다수의 여성이 매달 월경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 모두들 침묵해요. 그것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편견들이 월경은 창피한 것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월경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경이롭기까지 한 현상이랍니다.

일회용생리대는 광고에서 "깨끗해요"나 "여자는 한달에 한번 마술에 걸린다"등처럼 월경은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춰야 하는 것 혹은 비밀스러운 것으로 포장시켜 더욱 더 우리 사회에서 월경의 은폐를 조장해요. 뿐만 아니라 각종 탐폰과 생리대업체들은 여성과 환경에 해로운 제품을 꼭 필요한 것처럼 과장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탐폰과 일회용생리대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자연환경을 엄청나게 오염 시킨데요. 한 여성이 쓰는 탐폰 혹은 일회용생리대의 양은 무려 12000개가 되요. 그게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산을 이루겠죠? 탐폰이나 생리대는 젖어서 불로 태워버리지도 못해요. 게다가 생리혈에 녹아있는 다이옥신이 땅, 바다, 강 등 우리의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먹는 동식물, 또 인간은 병든 물고기처럼 점점 독에 중독되어 가는 거죠. 우리의 몸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우리 여성의 월경을 관리하면서 길들이려하는 거대 기업들의 장사속에 절대 돌아나선 안 되겠죠.

이러한 취지에 긍정하고 지지하는 내/인/연에서는 매주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여학생 휴게실인 정정현 세미나실에서 대안 월경대 만들기 모임을 가졌답니다. 알록달록한 천으로 싸둘지만 한뼘 한뼘 바느질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월경에 대해 긍정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동안 꿈꿔왔던 월경의 부끄러움을 걷어내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불편해도 내가 하는 월경이니까 누구보다 나의 몸에 대해선 내가 가장 잘 알거라 생각해요. 그렇기에 내가 직접 만든 월경대는 우리 몸이 좋아하는 작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거대 자본에 의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만든 일회용 생리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월경대를 만들면서 나눈 다른 여자 친구들과의 수다는 대안 월경대 모임의 또 다른 재미였답니다.

대안 월경대가 궁금하다면 총여방으로 언제든 놀러오세요! 함께 즐겁게 이야기 하고, 우리가 하는 월경! 당당하게 긍정해요~♡



'가부장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

#2. 그녀들의 금잔디 놀이터 (운동모임)

♡마로♡

2005년 가을, 금잔디를 여학우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다! 어린 시절, 고무줄로 술래잡기로 뽀뽀 날아다니던 여학생들이 '여자는 조신해야한다'는 억압으로 또는 여자가 편하게 운동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는 점이 그동안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스물 한번째 총여학생회 내/인/연은 눈을 크게 뜨고 여학생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게 학교 곳곳에 설문지를 붙여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를 조사했습니다.

홀라후프, 줄넘기, 배드민턴 등등 여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드디어 금잔디와 농구장으로 나간 첫 날! 여지껏 보지 못한 여학생들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가을의 선선한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고무줄!을 외쳤고 고무줄을 사오자 다들 흥분하여 각자의 고무줄 실력을 자랑하였습니다. 다들 다른 지역에서 고무줄을 한 탓에 규칙이나 동작이 달라서 개인기전이 되었지만 정말 신났어요.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우리 함께 사방하게 살아요~~

#3. 정정현 극장으로 오세요 (영화모임)

♡콩나물♡

12월의 금요일 저녁,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정정현에서는 두 번의 영화상영이 있었답니다. 첫번째 주에는 여자교도소에서 밴드활동을 하던 네명의 멤버가 우연히 탈옥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밴드티>를 봤어요. 네 사람 각각의 매력적인 개성이 잘 드러난 것도 좋았고, 영화 중간중간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멋진 음악과 영상에 흠뻑 빠져 버렸죠. (영화 보고 나서 바로 OST 구입했을 정도니까요 ㅋㅋ) 무엇보다 그녀들의 거침없는 자유로움에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 나오는 야스민타바타바이의 카리스마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난 후에는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너무 좋다는 말 이외엔 할 수 없을 정도로 넋이 나가있을 정도였죠 ㅋㅋ 언제나 그렇듯 멋진 여자들이 그녀들을 억압하는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너무도 유쾌해요!

두번째 주에는 에로틱한 장면들을 촬영하는 영화제작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 <섹스 이즈 코메디>를 봤어요. 이 영화는 <팻걸>의 제작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감독 작품이기도 하고 동일한 여배우가 출연하기도 하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섹스는 코메디이다'라고 하는 감독의 메시지를 잘 읽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섹스나 연애의 일련과정들이 지극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걸 알면서도 그 각본대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상의 삶이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건 비단 영화속에서 뿐만은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감독은 섹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코메디스러움을 보여주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섹스와 섹스를 둘러싼 심리, 관계, 감정변화 같은 것들을 비웃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두 배우를 다독이던 감독의 모습도 인상깊었구요.

이후에도 정정현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랍니다. 여휴가 여학우들이 서로 소통하며 든든한 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많은 여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0^

#4. 너와 나의 FENERGY UP! (세미나 모임)

♡사락♡

지난 학기 여성학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항상 그랬듯이 아는 언니가 함께 하자는 제안 때문이었다. 나는 게을러서인지 스스로 이런 모임을 찾아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전학기까지는 한동안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고, 따라서 나의 의식은 꽤나 무디어져 있었다. 지금도 예리하게 문제를 비판한다거나 나를 둘러싼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대학생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마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억압을 받아도 무슨 억압을 받는지 알고, 나는 편하니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 당하는 불평등, 억울함. 모를 수도 있지만 굳이 알려고 한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처음 우리가 공부하려던 것은 '에코페미니즘'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나중을 기약하고 움페스티벌과 관련해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처음 정한 텍스트는 '내 방에 아마존을 키워라.'라는 책과 정이현의 '낭만적 사랑과 사회'였다. 무척 재미있는 텍스트였고 얘기할 거리가 풍부해 가볍지만 즐겁게 했던 것 같다. '아마존...' 세미나는 함께 참여하지 못해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책을 읽는 동안 내 고정관념과 나도 모르게 나를 비판하고 있던 내안의 규제를 깰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견고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내안에서 나를 가두고 있던 벽을 깨부수는 것 같은 해방감을 경험했다. 자신의 도덕관념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언제든지 세상의 관점에 서서 자신을 준엄히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 어두운 구석을 감추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낭만적..'은 소설이고 내용이 참 재미있었다. 여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흥미롭고 위험했고 안타까웠다. 우리는 그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녀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이야기했다. 공감도 많이 했고, 이견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의 관점을 넓히는데 작용했을 뿐, 우리를 충돌하게 하지는 않았다.

세미나의 막바지에서는 다들 바빠 예정대로 모이기 힘들었지만 참 즐거웠던 시간들이었다. 돌아보며 아쉬운 것은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 행동하지 못했던 것.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여성주의란 참 그렇다. 나에게 동감되는, 나의 감성이랑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틀을 깨기 어렵다는 것. 더 앞으로 나아가 더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 여성주의를 혼자서 고민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세미나가 그래서 필요하다.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여성이라면 모여 머리를 맞대 치열하게 고민하고, 즐겁게 수다 떨고, 경험을 공유하기를 추천한다.



Wom Festival * * * * *

* * * * * 잘 하고 있니..? * * * * *

첫째날 한채윤씨 강연회 <레즈비언, 섹스> ♡까운♡

막연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반감이었을까, 강연회의 주제를 보고 나를 이끌게 된 것은 이런 막연한 이유들 때문이었다.

레즈비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유없는 반감, 섹스에 대한 은폐(?), 이러한 사회의 억압들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을 항상 닫게 만들었다. 음페스티벌의 모토인 '모두들 잘 하고 있습니까'에 걸맞게, 첫째 날 한채윤씨의 강연회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체 시키려는 노력과, 억압받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수록, 동성애에 대한 다수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더해가는 듯 보였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위기속에서 피해 받는 성적 소수자들이었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물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을 숨길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당당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잡는 정체성, 구별 짓기, 이런 것들은 이제 던져버려도 좋겠다.

사랑을 표현하고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섹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서로에게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섹스하면, 야동을 떠올리는, 어둡고 침침한 곳의 은밀한 관계를 떠올리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서로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또한 섹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내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피임기구들을 이용해, 서로의 몸을 지켜줄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즐거울 수 있다면, 관계에 있어서 섹스는 매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장이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자리였다. 스스로의 사랑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규정짓지 말자.

둘째날 영화 상영 ♡파로♡

2005년 여름 페미니즘 비디오 액티비스트에서 상영한 영화를 학교에서 보게 될 줄이야! 섹션2 '일상의 재구성'은 세계의 단편영화와 한 개의 뮤직비디오로 이루어져있어.

< 치마폭, 내 연인은 뱀파이어, 랩랩, 3초의 우울> 치마폭을 제외한 나머지 세 편은 레즈비언에 관한 작품이었어. 뱀파이어는 서양에서는 익숙한 쿼코드인가봐. 성욕과 죽음은 교묘하게 맞닿아 있어서일까. 어쨌든 레즈비언 뱀파이어인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 보름달이 뜨는 날 키스하면 진정한 뱀파이어가 된다는 내용이었어. 주인공은 좋아하는 상대방이 헤테로(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상심하지만 그녀는 레즈비언이었고 둘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지. 얼마 전 엘워드에서 알리스가 뱀파이어학자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레즈비언 뱀파이어가 있는걸까? ㅎㅎ

랩랩은 안전한 섹스에 관한 뮤직비디오였어. safe sex sandwich 일본에서 만든 뮤직비디오인데 노래 중에 계속 나오는 '세파섹스 산도이치'를 연신 흥얼거리며 재미있게 보았어. 레즈비언 섹스에 관해서 저렇게 귀엽고 감쪽하면서도 계도적(?)인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니!

3초의 우울은 레즈비언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일본 작품이었어. 친구를 사랑하게 된 A와 그녀와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A의 옛 애인과 관계를 맺게 된 B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엇갈리는 내용이었어. 나는 이 작품을 보고 레즈비언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

존재하는 레즈비언의 삶이 한 작품에서는 일상적으로 그려지고 다른 작품에서는 뱀파이어라는 소재를 통해 그려지는 것을 보고 레즈비언을 소재로 한 좀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

셋째날 party? party! ♡핑관♡

SEX에 관하여 '잘 하고 있니...?'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한 행사는 총여방에서 진행된 파티였어요. '가장 야한 옷차림으로 만나요!' 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는 옷차림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옷도 많겠지만 이에 반해 남들 시선에 의하여, 남들이 바라 볼 내 몸매가 걱정 돼서 못 입는 옷차림도 많아요. 그 중에서 노출이 많은 옷은 더더욱 입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인/연에서는 당당한 내 모습을 사랑하며 긍정하기 위해 평소에는 생각지 못한 옷들을 입고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파티를 위한 멋진 배경과 음악, 그리고 기분을 더욱 더 달콤하게 해 주는 맛있는 음식은 필수죠. 빨간색 천으로 총여방을 둘러싸 신비하면서도 판타스틱한 분위기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 동안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솔직하면서도 편안하게 풀어나갔어요. 사실 여성들에게 있어 'SEX'라는 주제는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사실이에요. 여성의 성은 언제나 감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에 그녀들의 욕망은 늘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죠. 우리는 이번 파티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금기를 당당히 부수고 '성(性)'은 남녀 모두가 함께 말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하며, 그 동안 숨겨왔던 우리 안에 욕망을 모두가 표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공 감추고, 고민하고, 알면서 모른척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깨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이번 파티는 좋은 발판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음페스티벌이 끝난 뒤 내/인/연에서는 빨간색 표지의 불온물을 학내 여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불온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SEX'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이나 공식 없이 자유롭게 쓴 글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불온물 끝 장에는 콘돔이 붙어 있었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SEX'를 당당히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해요. 'SEX'를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이고 그렇기에 그 사람은 행실이 방정치 못한 사람으로 낙인찍히죠. 그렇기에 우리가 'SEX'에 관한 궁금증이나 지식을 얻기 위한 통로는 상당히 은폐되어 있고 또한 아직까지 성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콘돔은 여성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도구입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콘돔은 창피하고 불결한 도구가 아닌, 나를 위한 도구이지요.

이번 음페스티벌은 그 동안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들을 수 없었던 우리안의 욕망인 '성'을 주제로 얘기해 보았어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감춰질 때 썩는다고 하죠. '성'은 그렇게 썩어야 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에 솔직하고 당당할 때 좀 더 밝고 건강한,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칙한 금잔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금잔디로 내/인/연이 찾아갑니다.

이번 달인 3월 29일 수요일에는 도서오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동안 읽고 싶었으나 접하기가 쉽지 않아 낯설게만 느껴졌던 주옥같은 여성주의 책들을 함께 읽고 얘기해 봐요. 맛있는 다과와 기분 좋은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여성주의 도서를 읽고 A4 1장 분량의 소감을 적어 보내주세요~!
정성스레 적어주신 몇 분에게 도서상품권을 드릴게요 >_< *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다 - “일어나!”〉

이번 학기부터 총여학생회에서는 강의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교수’라는 권력은 강력하고도 권위적입니다. 그렇기에 강의 중에 일어나는 언어 성폭력은 교수의 수업 재량권이라는 명목 하에 인식되지 못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강의 중 교수의 언행은 별다른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사과도 못 받은 채 혼자 끔찍거리다 문제는 묻혀 지거나 잊혀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수의 성폭력적인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며, 지금 이 순간 당당하게 레드카드를 뽑아 들고자 합니다. 이 레드카드의 시작인, 강의 중 언어 성폭력 뿌리 뽑기의 프로젝트명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다 - ‘일어나!’>로 정하였습니다. ‘사자’는 우리 사회와 학내에서 교수가 가지는 권력을 비유한 말로 그들의 ‘잠자고 있는’ 성 평등(남녀평등) 의식을 일깨우고, 이제껏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교수의 강의 중 성폭력적 발언을 민감한 ‘코털’에 비유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고와 언행을 ‘뽑아버리자’는 뜻의 이름입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교수의 성 평등 의식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동시에, 우리들 역시 이런 발언을 들었을 때 참고 넘기지 말고 일어나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의 중 언어 성폭력 문제는 해당 발언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묵인될 수 있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대학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성폭력 발언에 문제를 느끼면서도 침묵을 강요받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애써 설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될 것입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열린 인식과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강의실 내의 성폭력적인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성폭력 없는 강의실 문화 만들기

-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웃고 동조하는 반응, 혹은 그에 문제제기 하는 상황에 대해 회화화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아요~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웃는 것은 그 발언을 한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는 반응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웃는 것은 마치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 하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제기 한 사람을 회화화하는 반응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을 사람의 용기와 의지를 꺾는 것 이랍니다.
- 교수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나, 무조건 추종적인 교수-학생의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강의 중 학문적인 부분을 설명하며 은근슬쩍 한 말일지라도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고 기분 나쁨을 표현하는 것은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 성적인 비하나, 성 차별적인 말을 듣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은 우리가 가진 당연한 권리잖아요~
내가 선택한 교수라고 해서 여성을, 곧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그냥 넘기는 것은 안되겠죠. 내가 선택한 수업은 나의 전공지식과 교양지식을 기르기 위함이지 그런 발언까지 허락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니까요.

♣ 제도적인 요구안

- 강의 평가 및 교수 평가 항목에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을 묻는 항목 추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양질의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강의 평가 및 교수 평가 항목에 언어적 성차별/성폭력을 묻는 항목을 추가하여 이런 발언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강사는 임용을 하지 말아야 하겠죠.
- 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강사에게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여 의도치 않게 학생들에게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 반성폭력 학칙에 있어 교수 성폭력에 관한 특별항목 추가 요구

만약 교수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대책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그 위원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동료 교수와 학교 교직원으로 이루어졌다면 객관적인 사건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반성폭력 학칙에 있어 대책위를 꾸릴 때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학생대표의 인원수를 더 늘리는 등의 특별항목이 추가되어야 해요. 또한 사건이 학기 중에 일어났을 때는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해 교수가 아닌 다른 선생님을 통해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보장되어야겠죠.

• 여성학 연계전공 수업 보완 및 증설 / 여성주의 관점 및 젠더인지적 관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수업 증설

우리는 20년 넘는 시간동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틀 안에서 살아왔어요. 교수와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또한 예외일 수 없겠죠. 사람은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성학 과목이 많고 많은 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도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교강사 중에도 성 평등적 인식을 가진 분들이 늘어난다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수업 시간에도, 또한 다른 교강사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해 필수 이수 과목군 내에 성평등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 신설

우리 학교에는 전공을 받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수교양이라고들 말하죠. 여/남이 함께하는 사회를 살기위해 성평등 감수성을 키우는 수업이야 말로 필수가 아닐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성학 수업을 듣고 성평등 감수성을 키운다면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듣고 누군가가 문제제기 했을 때 그 문제제기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강의실 분위기는 없어질 거예요.



함께 해요! = 강의 중 언어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면, 그리고 불쾌하다면, 우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총여학생회실로 찾아 오시거나 www.cyworld.com/madebyherstory 게시판(익명)에 남겨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학내 곳곳에 있는 모니터링 용지를 이용해 여학생 휴게실인 '정정현'에 비치된 모니터링 상자에 넣어주세요. 모니터링한 개인적인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성주의 세미나

함께해요!

‘움 틈우리’세미나는

- ‘여성주의’에 대해 평소 알고 싶었던 것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입니다.
- 가족, 연애, 노동, 성폭력 등 다양한 이슈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요.
-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던, 우리들의 ‘성(性)’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 성차로 인해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 보아요.

byherstory.cyworld.com(클럽) 또는 011-708-9867(날래)에게로 신청및 문의해주세요!

내 / 인 / 연의
06년도!

함 / 께 /
해 / 요 ~ !

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다 - “일어나!”>

앞면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번 학기에는 대대적으로 강의 중 언어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 갈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다가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이라고 생각되면 byherstory.cyworld.com의 게시판(익명)에 남겨주시거나, 학내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모니터링 용지에 기입하셔서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정정현’에 비치된 모니터링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총여학생회실로 직접 신고하시거나 011-9761-5750(하나)로 문자/전화 주셔도 좋아요.
강의 중 언어 성폭력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들의 감수성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해결을 위해 싸워나가겠습니다.

② 2006 <여성 현실제>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기대되어지는 언행들은 여성을 규정된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내/인/연은 이러한 고민들을 화창한 5월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만의 축제를 신나게 만들어 보아요.

③ <옴 띄우기 세미나>

가족, 섹슈얼리티, 성폭력, 젠더, 동성애 등등 재미있는 주제들이 무궁무진하답니다. 주옥같은 책들을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세미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여성주의의 재미에 푸욱 빠져보세요. 누구나 함께 여성주의적 고민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하고프시다면 011-708-9867(날래)에게 연락을 주세요. 서로가 있어, 서로가 함께이기에 더욱 더 행복한 여성주의 세미나 함께 하세요. 당신의 숨어있는 Wom을 확 띄워 드립니다.

④ <발칙한 금잔디>

그 이름도 거창하다 - 발칙한 금잔디! 황량하기만한 금잔디가 물(水)을 만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내/인/연이 금잔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창한 수요일에 맛있는 다과와 함께 하는 테마가 있는 수요일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인 3월 29일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여성주의 책들이 금잔디에 펼쳐집니다. 많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으나 그 동안 기회가 마땅치 않아 접하지 못했던 여성주의 책들을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어디서도 못한 고민들을 함께 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페미니즘에 여러분의 호기심을 더하면 더욱 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4월,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흥미롭고 다양한 행사들이 화려하게 열린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⑤ <성폭력 사건 지원>

가부장적 문화가 농후한 학내에는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피해자의 민감성을 문제 삼고, 심지어는 가해자에 대한 동정심까지 대두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성폭력 학칙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위해 학교와 대화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한학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가 성에 구애 받지 않고 함께 행복해 지는 날까지

Fenergy Up! >>